

지역 소식 통

고창소방서, 벌초·성묘 시
벌쏘임 사고 등 예방 당부

고창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벌쏘임 사고와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전후해 예초기·사다리 사용 중 부상 사례가 늘고 있으며, 9월은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 벌쏘임 환자가 급증한다. 특히 말벌은 작은 자극에도 집단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안전한 벌초와 성묘를 위해 △긴 옷과 장갑·보호장비 착용 △주변 벌집 여부 사전 확인 △벌집 발견 시 무리한 제거 대신 119 신고 △벌쏘임 대비 상비약 휴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초기 사용 전에는 연료와 날을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보호경·귀마개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소규모어가 수산
직불금 2차 추가 접수

부안군은 2025년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 마감된 1차 신청에 이어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꽃게 조업 등 어업 성수기를 맞아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가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어가당 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2024년도에 1013 어가에 13억 2000만원의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1차 신청기간 중에는 1251건이 접수돼 전년도 대비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만금 RE100 산단 지원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 새만금 내 부족한 산단 확충 등 강점 적극 설명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부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부안군민 약 4만 8000명 중 1만 8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서명부는 부안군민의 간절한 희망과 결집된 의지를 담은 목소리로 이제는 정부가 부안군민의 간절한 바람에 진심으로 응답해 줄 차례”라고 호소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공약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단지 조성을 적기에 구현할 수 있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단단지를 확충하고 부안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새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산업 인프라에서 소외됐던 부안 발전을 위한 부안군민의 의지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단단지를 확충하고 부안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새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산업 인프라에서 소외됐던 부안 발전을 위한 부안군민의 의지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장금이 정원에서 지난달 29일 '우리왕실배추 파종식'이 열렸다.

조선 궁중의 맛, 산내에서 되살리다

정읍시, 장금이 정원에서 '우리왕실배추 파종식' 열려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장금이 정원에서 지난달 29일 '우리왕실배추 파종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내면이 후원하고 우리왕실배추보존회와 우리왕실배추정읍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왕실배추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길러져 왕실의 식문화에 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삼의 씹아씹한 맛, 갖의 알싸한 맛, 달달한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미로 주목받으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귀한 작물로 평가된다.

산내의 청정하고 비옥한 토양과 큰 일교차는 왕실배추의 안정적인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장급 장금이와 고향인 산내에서 재배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읍=김대환기자

다.

파종된 씨앗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유채꽃처럼 노란 꽃을 피운다. 꽃대는 최대 2m까지 자라며, 개화 기간이 두 달가량 이어져 내년 4월에는 장금이 정원이 노란 배추꽃밭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는 꽃 축제도 열려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왕실배추가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고 관광산업과 연계된 경관농업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한승희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우리왕실배추로 절인 비빔밥 나눔 시식회가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쓰레기·안전사고 없는 세계유산축전 만든다’

고창군,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축전 선포식’ 열려

고창군이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앞두고 ‘쓰레기 배출 자제’ 등을 약속하는 선포식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 축전’ 선포식을 열고 친환경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 고인돌·갯벌’ 개최를 다짐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추진 상황 보고 △축전 통합해설사 위촉장 수여 및 선서 △‘함께 만드는 축전’ 큐브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이번 축전을 준비하며 △쓰레기 없는 축전 △안전한 축전 △모두가 즐기는 축전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축전을 4대 실천사항으로 정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위촉된 축전 통합해설사는 고인돌·갯벌 해설시를 통합 운영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고창의 7가지 보물 및 세계유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선서식을 통해 축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축전은 고창이 가진 소중한 세계유산을 군민과 함께 지키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사적인 기회다”며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은 오는 10월 2~22일(21일간)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할 것을 선언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축전은 고창이 가진 소중한 세계유산을 군민과 함께 지키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사적인 기회다”며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은 오는 10월 2~22일(21일간)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열어

정읍시는 3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구상안을 공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진강과 정읍천을 생태·레저·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정읍의 랜드마크이자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회에서는 동진강과 정읍천을 중



심으로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안됐다. △동진강·정읍천 합류부를 생태정원과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쉼터로

탈바꿈 △인도교 설치를 통한 하천 간 연결성 강화 △동진강 제방을 따라 자전거길과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를 마련해 친환경 레저공간 확충 △낙안보 하중도에 복합레저 스포츠공원 조성 △정읍천 하플레이스와 인공섬,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다. 또한 역사축제를 활용한 사계절 콘텐츠 개발도 포함돼, 계절마다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지난 1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정읍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4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과 실습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제 영농기술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정책과 성공사례,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 경영과 세무·법률, 농기계 실습 등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실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운영해왔

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과정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농업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관 소장은 “귀농·귀촌 초기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규농업인들이 농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읍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